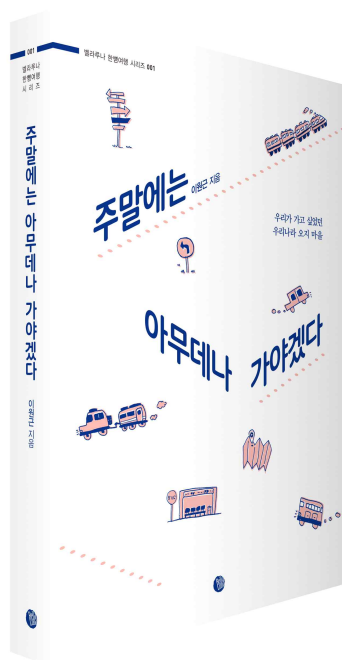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보려는 당신을 위한
벨라루나 <한뼌여행> 시리즈
『주말에는 아무데나 가야겠다』 개정증보판!

대한민국 방방곡곡의 오지 마을을 더 풍부하게 소개합니다.



벨라루나 <한뼌여행> 시리즈 001

주말에는 아무데나 가야겠다

우리가 가고 싶었던 우리나라 오지 마을
이원근 지음

2017년 11월 1일 개정판 발행

ISBN 979-11-5816-066-1 13980 | 145 * 205mm | 376쪽 | 15,800원

편집 031-955-1908 마케팅 031-955-8889

벨라루나 한뼌여행 시리즈



당신의 손안에 매혹적인 여행지를 담어드립니다. 지도를 펼치고 지도 위로 한뼌을 올려놓으면 멀게만 느껴지던 '그곳'이 한 손에 다 들어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가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한뼌여행> 시리즈는 어디로든 가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짐을 싸게 하고, 함께 가자고 누군가에게 손 내미는 날들을 선물해줄 것입니다.

더 풍부해지고 더 화려해진, 개정증보판!

2015년 3월 봄에 『주말에는 아무데나 가야겠다』를 출간하고 시간이 또 빠르게 흘렀다. 3년이면 오지 마을도 어떻게든 변하고도 남을 시간이다. 하여, 개정증보판을 출간한다. 그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특색 있는 여행지들을 추가로 소개했으며 시간이 흘러 매력이 보다 평범해진 곳은 삭제했다. 또, 변경된 정보들도 보충했으며 잘 알려지지 않은 더 좋은 코스들을 소개했다. 더 멋진 오지 마을의 모습을 담은 사진 또한 추가하여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책을 다듬었다.

작가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가보지 않았던 때로는 오붓하고, 때로는 다정하게 다녀올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한다. 다른 곳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곳이고, 조금 더 힘을 내야 만날 수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가 소개하고 있는 곳들 중의 대부분은 공기가 좋고,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야생화가 군락을 이루고, 거대한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작가가 추천하는 여행은 사실 요즘같이 교통도 편의시설도 좋은 시대에서 불편한 여행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고 힘겨운 여행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구석구석 숨어 있어 구불구불 걸어 들어가야 하지만, 큰 도로도 나 있지 않아 차를 놓고 한참을 걸어야 하는 곳도 있지만,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곳도 있지만, 여정에서 뜻밖의 기쁨을 마주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작가는 그런 매력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즐겨주기를 바란다.

이 책에 소개된 곳에 가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요동칠지 기대하게 만든다. 더불어 그의 따듯한 가이드는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갖게 만든다.

우리나라의 걷기 좋은 길을 찾아다닌 아버지, 그 길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아들 천상 ‘여행쟁이’ 일 수밖에 없는 부자(父子)의 동행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내다 돌아오고 싶은 때가 있다. 그

런데 유명한 관광지에 머물며 사람에 치이거나 공해에 머리가 지끈거리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원근 작가와 작가의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보다 조용하고 한적한 오지 마을을 소개한다. 오지라고 해서 아주 깊은 곳에만 위치해 있지 않고 생각보다 찾아가기 불편하지도 않다. 볼거리가 없어 할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좋다. 공해를 벗어나 심신이 상쾌해지는 여행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이원근 작가의 아버지는 하루라도 여행을 떠나지 않으면 몸살이 날 정도로 여행을 사랑하는 여행쟁이이다. 그런 그의 아버지는 ‘승우여행사’의 대표 자리에서 지금껏 국내여행을 개척해왔다.

작가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여행을 시작했고 현재는 ‘여행박사’라는 여행사의 국내여행 팀장 자리에서 여행가의 길을 걷고 있다. 무려 20년째 이 일을 하고 있다.

아버지와 함께 대한민국의 방방곡곡을 다니며 답사를 했고, 다양한 코스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코스와 여행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으며, 인솔하고 가이드해왔다. 이 책은 안내서인 동시에 그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배워온 여행을 토대로 작가가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여행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다. 오래전부터 시작된 그들의 동행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

당신이 있는 곳에서 딱 한뼘만 펼치면 된다 쉽게 떠나는 여행! 골라 가는 재미!

짧은 주말을 이용해 다녀오고 싶은 알찬 여행지, 매혹적인 여행지가 한뼘 안에 담겨 있다. 그러나 여행지의 상세한 정보만 빼곡하게 들어 있던 기존의 여행 안내서와는 달리, 이 책은 그곳의 매력과 그곳에 가야만 하는 이유에 치중하고 있다. 일단 떠나라고 말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추천 일정과 근처의 볼거리, 즐길 것들, 먹거리 등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다. 추천 일정은 도착한 마을에서의 일정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출발하든 그곳에 도착한 이후의 하루 일정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여행지에 대해 주어진 정보가 간단한 만큼 그 정보들은 그 지역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동강에서만 피어나는 동강할미꽃, 정선의 정선아리랑, 콧등치기국수, 월외마을의 달기약수백숙, 오대산 경남식당 예림 할머니의 장아찌, 봉성마을의 숯불구이 등 그곳에서만

즐길 수 있는 기가 막힌 것들이 나열되어 있다. 하나를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것들이다.

그냥 걷고 싶어지고, 든든한 식사를 하고 싶어지고,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만나 몇 마디 나눠보고 싶어지는 것. 일단 떠나보자는 마음이 앞선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마주했을 때의 반가움과 기쁨이 모든 고생을 잊게 만들 것이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들이 하루를 더 여유롭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간질이기도 한다.

책은 지역별로 강원도 29곳, 경상도 10곳, 전라도 8곳, 충청도 2곳, 경기도 2곳으로 구성되어 총 51곳이 소개되고 있다.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이고, 꽃을 보러 가기에 좋은 곳, 걷기에 좋은 곳, 계곡이 흐르는 곳, 숲이 우거진 곳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꽃을 보러 가기에 좋은 마을로는 복숭아꽃으로 마을 전체가 분홍빛으로 물드는 월등마을(320쪽), 만개하는 꽃과 사찰의 조화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조계산의 굴목재(312쪽), 사람 키보다 높게 자라나는 짙은 철쭉이 군락을 이루는 흥부마을(302쪽), 노란 꽃을 가득 피우는 산수유나무가 줄을 지어 서 있는 산수유마을(331쪽), 갖가지 종류의 야생화가 매주 다른 모습으로 피어나고 있는 설피마을(108쪽) 등이 취향과 기분에 맞게 이번주에 떠날 곳을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

특히, 스무 개가 넘는 우리나라의 계곡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찾지 않아 물이 아주 맑은 곳만을 선택했다. 수심이 얕아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안전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는 계곡, 빙하시대에 살던 열목어가 서식하는 대현마을의 계곡(225쪽), 폭포가 가까이에 있고 물줄기가 대단하여 어느 곳보다 우렁찬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고라테이마을의 계곡과 이끼가 아주 많아서 푸른 빛을 실컷 즐길 수 있는 봉명리의 이끼계곡(90쪽),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 벌거벗고 목욕을 즐기는 조경동마을의 계곡(134쪽), 신선이 노닐었던 계곡이라기에 격격인 무릉계곡(185쪽) 등 수많은 계곡이 있다.

비밀인 것마냥 조심스레 공개하고 있는 곳도 있다. 아는 사람이 몇 없는 곳이기도 하고 장관을 연출하기도 하고 자연이 보존되고 훼손되지 않은 곳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조계산 굴목재(312쪽)의 선암사는 절과 꽃의 조화가 대단히 아름다워 꽃놀이를 좀더 색다른 광경에서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내장산 반월마을(294쪽) 같은 곳도 마찬가지이다. 꽃놀이나 단풍놀이를 사람에 치이지 않으며 즐기면 좋겠다는 마음에 아낌없이 그곳을 소개하고 있다. 한치마을의 소금강 옛길(56쪽), 연가리마을(141쪽) 등도 낱알이 공개된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떠나기엔 더없이 좋은 곳들이다. 자가를 가지고 있다면

더욱더 좋다. 함께 걷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푸른 것을 보고,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떠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니 정말이지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떠나기를 바란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주말에 소파에 누워 티브이만 보고 있을 당신의 마음을 쿵쿵 찌른다. “주말에는 아무데나 가야겠다!”라고 외치게 될 테니 일단 소파에서 일어나 짐을 꾸리기를.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한뼘만 펼쳐보면 닿는 거리에 좋은 곳이 이렇게나 많다. 일단 ‘아무데나’ 가자.

‘아무데나’는 예천 용궁의 재래시장 안에 있는 한 식당 이름이기도 하다. 이 재래시장은 옛날 그대로의 모습으로 아직까지 자리하고 있는데 기름을 짜는 제유소도 찾아볼 수 있고, 영화 포스터를 그리던 사람이 만든 간판도 찾아볼 수 있고,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과 한산한 거리도 있다.

작가는 이곳에 들렀다가 ‘아무데나’라는 식당을 지나쳤는데 자꾸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이었다. 작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식당을 돌아본다. 잠깐 스쳐가는 ‘아무데나’라는 이 말이 이상할 만큼 곱게도 느껴지고, 정겹기까지 하다. 이 마을에 들러본 자라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마을에 잠시 차를 세우고 따스한 것들을 한아름 얻어가기를 바란다. 그것을 품에 넣고 다시 나날들을 지내다가 또다시 아무데나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훌쩍 떠나면 좋겠다. 사람들이 높은 곳에 서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역시 아무데나 오길 잘했다고 생각하기를 작가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본문 중에서

만항마을 / 만항재

만항재는 우리나라에서 차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고갯마루다. 정선에서 영월, 태백으로 이어지며 이는 운탄로의 일부분이다. 운탄로는 산 구석구석을 뚫었고, 이곳 만항재까지 이어져왔다. 만항재가 있는 능선은 태백산에서 함백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으로 금대봉, 은대봉 그리고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인 정암사도 이 자락에 있다.

보통의 기온보다 5~10도 정도 차이가 나서 안개가 자욱한 날이 많다. 구름 위를 걸을 수 있는 상상 속 그곳이다. 구름 속을 느낄 수 있는 만항재, 그 아랫마을인 만항마을이 천국이 아닐까 싶다. _만항마을, 199쪽 중에서

울릉도 나리분지 / 성인봉 동반

대표적인 코스가 도동에서 올라 성인봉을 찍고 회귀하는 코스이다. 하지만 도동에서 오르는 길은 대원사 입구에서부터 등산로까지 올라가는 길이 시멘트이며 가팔라 쉽게 지치기도 한다. 약 5~6시간 정도 예정하면 다녀올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나리분지에서 오르는 코스를 추천한다.

나리분지에서 성인봉으로 오르는 길은 도동에서 오르는 것보다 훨씬 쉬우며, 천연림으로 오르는 길이라 오르는 내내 힐링을 하며 걸을 수 있다. 한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산행할 수 있다. 다만 화산섬이다보니 정상까지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지 않고 쪽 오르막길로 되어 있다.

신령수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1,500여 개가 넘는 계단을 올라야 성인봉에 도착할 수 있다. 예전에 계단이 없을 때는 이보다 수십 배 힘들었던 길이니, 예전보다 쉽다고 생각하며 한 계단 한 계단 오르길 바란다. 성인봉에 올라 전망대까지 보고 도동으로 내려오면 최고의 성인봉 코스를 밟은 것이라 할 수 있다. _울릉도 나리분지, 286쪽 중에서

월등마을 / 복사꽃

처음 이곳에 간 건 2006년 3월이었다.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 가는 답사였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 어머니는 그때 몸이 많이 좋지 않으셨다. 웬만큼 완치가 된 후 처음으로 함께하는 가족나들이라 더 기억하고 있다. 그곳에 가면 항상 어머니와 아버지 생각이 난다.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가부장적이고 무뚝뚝한 아버지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걷는 장면이 떠오르기 때문인 것 같다. 복사꽃의 꽃말은 '사랑의 용서'이다.

여행에 미쳐서 집안을 어머니에게 맡겼던 과거, 그 때문에 어머니가 편찮으셨던 건 아닐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용서에 어머니가 그의 손을 잡아주며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다. 월등마을에 붉은빛이 아닌 부드러운 분홍빛이 있는 건 사랑의 용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_월등마을, 325쪽 중에서

목차

여행을 시작하면서 _004

강원도

- 01 양치재와 굴암리 _016
- 02 비수구미마을 _024
- 03 덕풍마을 _031
- 04 안반덕마을과 피덕령 _041
- 05 덕산기마을 _050
- 06 한치마을 _056
- 07 귀네미마을 _062
- 08 제장마을과 연포마을 _069
- 09 살둔마을 _079
- 10 구룡령 _084
- 11 고라데이마을 _090
- 12 무건리 _096
- 13 부곡 _102
- 14 설피마을과 강선골마을 _108
- 15 늑다리마을 _115
- 16 모운동 벽화마을 _121
- 17 대간령 마장터 _128
- 18 조경동마을 _134
- 19 연가리마을 _141
- 20 새비령 _147
- 21 안창죽마을 _155
- 22 월정리 _163
- 23 양구 _171
- 24 구와우마을 _176
- 25 횡계 _180
- 26 무릉계곡 _185
- 27 만항마을 _196
- 28 칠랑이골 _206
- 29 원대리 _211

경상도

- 30 청량산과 봉성 _218
- 31 대현마을 _225
- 32 승부마을 _232
- 33 대성골 _240
- 34 대티골마을 _247
- 35 여차마을 _252
- 36 내원동과 월외마을 _257
- 37 상림 _266
- 38 예천 용궁 _273
- 39 울릉도 나리분지 _280

전라도

- 40 내장산 반월마을 _294
- 41 흥부마을 _302
- 42 계화도 _308
- 43 조계산 굴목재 _312
- 44 월등마을 _320
- 45 도리포마을 _326
- 46 산수유마을과 현천마을 _331
- 47 영광 구수재 _336

충청도

- 48 태안해변 _344
- 49 독곶마을 _351

경기도

- 50 풍도 _358
- 51 국화도 _364

소개를 마치며 _374

추천사

피는 물려받는 것이다. 제 피의 온도는 스스로 높일 수 없는 것이다. 평생을 돌아다니며 살아야 하는 업의 전생애 뜨거운 피가 먼저 돌아야 하는 것이다. 그의 들끓는 피도 물려받은 것이다. 반세기 가까이 방방곡곡을 떠돈 아버지의 바람 같은 삶을 그는 대물림한 것이다. 그 온도를 주체하지 못해 스무 살 청춘은 바람 앞에 섰고, 마흔이 넘은 지금도 바람 안에 산다. 하여 그의 여행담은 가벼울 수 없다. 그에게 여행은 전생의 업이어서이다.

지난 십여 년, 그와 더불어 참 많이도 싸돌아다녔다. 무턱대고, 정처 없이, 그리고 아무데나 헤집고 다녀서 우리의 여행은 거칠었고, 하여 행복했다.

먼길 돌아와 이제야 무용담 한 자락 내려놓는 네가 대견하다. 너와 한없이 싸돌아다녀서 좋았다. 내 여행의, 이제는 내 인생의 한자리를 차지한 인연아.

—손민호 (중앙일보 여행레저 기자)

작가 소개

이원근

1976년생. 여행사를 운영하신 아버지의 영향으로 스물세 살 때부터 20년째 한량처럼 차를 몰고 전국을 다닌다.

이제 막 여행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 좋은 곳이 꽤 많다며, 내가 가본 곳을 골골살살 한군데도 빠짐없이 자랑하고 싶다.

keuni76@naver.com